

과천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홍보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0:00:00]

정재우 기자



[FPN 정재우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나성수)는 7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급수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기재하도록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1급과 2·3급으로 나뉘어 있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양식(10가지)으로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작성법을 변경했다.

세분화된 용도별 양식은 집회와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 10개다.

새로운 양식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양식은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과천소방서 홈페이지(소방민원-민원서식-민원서류안내 혹은 팝업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